

구족계와 보살계, 양립 불가?

한국불교학의 '계율과 현대사회' 워크숍서 격론

조계종에서는 구족계 수계신립시 보살계와 구족계를 함께 받도록 돼 있다. 이런 가운데 보살계와 구족계를 모두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월 11~12일 부산 내소사에서 '계율과 현대사회'를 주제로 열린 2006 한국불교학회(회장 이평대) 동계 워크숍에서 구족계와 보살계의 양립 가능성 여부를 놓고 한바탕 격론이 벌어졌다.

필리핀연구원 소장 마성 스님은 '소승계와 대승계의 양립에 관한 문제' 발표를 통해 "〈사분율〉의 구족계는 부파불교에서 전승해 온 성문계(소승계)이고, 〈범망경〉의 보살계는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대승계"라며 양립 불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 박건주 박사는 "오히려 보살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며 반박했다.

는 분도 있고 성문 근기를 가진 분도 있기 때문에 구족계와 보살계가 양립할 수 있다"며 "오히려 두 계가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받아들였다.

박건주 박사는 또 "대승계의 내용에 이미 소승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실제로 대승계가 더 지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마성 스님은 "구체적으로 계목(戒目)을 정하고 있는 소승계에 비해 두루 문술한 대승계로 종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가 지켜지지 않는다"며 "정규 제정 등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헌 중범에 정규 명시"

이번 워크숍에서는 또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율이 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마성 스님, "내용적 모순 많아"

이미 여러 율사들이 '양립 불가'를 주장했다고 밝힌 마성 스님은 "중국에서 찬술된 위경(僞經)인 〈범망경〉의 보살계에서는 성문의 가르침 혹은 소승계를 전혀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상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보더라도 양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마성 스님은 특히 "대승불교권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은 상좌불교의 출가자들처럼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구족계를 받아야 출가자가 된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성문계와 보살계는 같은 장소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고, 후에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 박건주 박사는 "실제 스님들을 보면 보살 근기를 가지고 있

마성 스님 "범망경' 소승계 용납 안해"

박건주 박사 "대승계에 소승계 내용 포함"

이자람 박사 "시대변화 부응하는 율 정립"

도교대 외국인특별연구원 이자람 박사는 "율장을 통해 본 승단과 현대사회의 조화" 발표에서 "계가 도덕이나 율리를 지칭하는 반면 율은 세간의 법률에 해당하는 용어로 강제적이고도 객관적인 규범을 가리킨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이어 "율의 제정에는 승단과 일반사회와의 적절한 조화의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다"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불교승단 역시 율을 제정한 붓다의 가르침



2월 11~12일 부산 내소사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대로 사회가 제시하는 상식 속에서 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이렇게 함으로써 승단은 일반사회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고, 승단과 일반사회 사이의 갈등 소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박사는 "오후불식을 철저히 실천하는 남방불교권에서는 체력 유지 등을 위해 육식을 한다"며 "그렇지만 우리

관련한 불교계의 움직임은 비판하는 목소리도 불거졌다.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허남걸 교수는 "한국 불교가 계율을 현대사회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자신감과 윤리적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황우석 사태와 관련해 불교계는 세련된 태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종교 입장의 차이가 아니라 진리탐구를 생명으로 하는 과학자가 그 절차를 조작하고 결과를 왜곡했다는 도덕적 범죄행위에 있는 것"이라며 "여기에 불교계가 종교적 음모론을 들먹이는 것은 다소 성급했다는 느낌을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또 "한국불교계는 계율 엄수주의 때문에 난처하고 관련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율의 준수가 희화화되는 분위기가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 외에도 임승택(경북대 철학과), 김준호(부산대 철학과), 조준호(동국대 불교학과) 박사 등도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워크숍은 40여명의 한국불교학회 회원들이 참여했으며, 한국불교학회는 4월 14일 동국대에서는 열리는 춘계 학술대회에서 다시 '계율과 현대사회'를 주제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황 박사 시대 세련된 대응 아쉬워"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황우석 박사와

글 : 사진/부안=유철주 기자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오대산 사고 모습.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환수 추진

월정사 등 불교계 중심 환수추진 구성

3·1절 공식 창립... 日 총리 상대 소송제기

일본 동경대학교에 보관돼 있는 오대산 월정사 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 환수가 추진된다.

대한불교 조계종 월정사(주지 정념)와 봉선사(주지 철안)는 '가칭'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이하 환수위원회)를 구성하고 동경대학교 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46책의 반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환수위원회는 월정사 주지 정념,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이 공동의장으로 김상용 독립기념관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7명을 환수 위원으로 위촉하고 실행위원장에 문만기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을 선임해 본격적인 환수 운동에 돌입했다.

국보 제151호로 유네스코 등록 세계 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은 임진왜란 이후 태백산, 적상산, 오대산, 강화도 사고 등 4곳에 분산 보관돼왔다. 그 가운데 선조 39년(1606년) 보관된 오대산본은 월정사가 조선왕조실록수호사찰로, 월정사 주지스님이 실록수호

총섭으로 임명돼 관리돼왔으나 1913년 조선총독 테라우치와 동경대학교 백조고길(白鳥高吉)에 의해 동경대학교로 불법반출 되었다. 그뒤 관동대지진 때 거의 불타 없어지고 27권만이 1932년 서울대로 돌아왔다.

환수위원회 간사 해문 봉선사 총무과장스님은 "불교계에서는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환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조선왕조실록이 동경대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민원질을 통해 문화재청에 공식 확인후 본격적으로 환수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월정사 오대산 사고를 지키는 수호총섭이었고, 실록을 수호하겠다는 약속은 조선왕실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모두와의 약속이기도 하다"며 "조선왕조실록 지킴이의 자격으로 일본이 약탈해간 조선왕조실록의 반환을 꼭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환수위원회는 3월 1일 공식 창립을 선포하고 일본 총리 고이즈미와 동경대 총장을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두식 기자

대전에 문화재복원 종합병원 설립 총 2100평 규모... 2008년 완공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및 복원을 위한 문화재종합병원이 설립된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2월 13일, 올해 예산에 문화재종합병원 시설 공사비로 20억원이 반영되어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문화재종합병원은 지난해 3월 21억을 들여 매입한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445-2번의 17필지에 세워지며 지하 1층 지상

4층 총 2,166평 규모로 2008년 설립된다.

문화재종합병원 설립은 보존 대상 문화재의 급증에 따른 보존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 매년 문화재 지정이 100건이 넘고 출토 유물이 3만점이 넘는 등 현 문화재 약 400만점 가운데 보존처리율이 0.3%에 불과하다.

또한 문화재 보존을 담당할 전문보존처리 기관과 인력 부족, 체계적인 문화

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가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문화재종합병원은 개인소장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국가 문화유산의 최종 보존처리,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진료·진단·복원·조사연구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존시스템 확립, 문화유산 보존재료·기술 등에 대한 표준평가 및 지표

개발,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문화재종합병원의 설립으로 인해 향후 고고학적 출토 유물의 보존처리 능력 향상, 복원기술 및 재료개발을 통한 처리비용 절감, 사후 보존 활동에서 예방 보존 정책으로 원형 보존, 한국형 문화재보존처리 시스템 구축 등이 기대된다.

김두식 기자

세계경전번역 실태 발표

경전연구소

경전연구소(이사장 돈연)는 2월 25일 오후 3시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세계 각국의 경전번역 실태 및 번역체계에 관한 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발표회는 불교 경전을 번역한 사례가 있는 국가별로 해당 국가에서 경전을 연구해 온 전문가들이 조사·발표할 예정이며 발표회 진행은 그룹 스터디

형식의 발표와 토론을 위주로 진행된다.

발표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중국·스리랑카·티베트의 경전 번역 실태를 동국역경원 박상준 역경위원 외 2명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2부 진행에서는 영국·미국·한국·독일·일본·미얀마의 경전 번역 실태를 동국대 황순일 인도철학과 교수 외 5명이 발표한다. 노병철 기자

* 기사 넘쳐 '바영준 교수의 과학기술과 불교' 쉽다.

원적하신 보성스님의 49재를 추모하며...

지난 2월 7일(화) 사패산 터널공사와 관련한 환경훼손 관련운동을 했던 보성스님이 분당 재생병원에서 입적하셨습니다. 보성스님의 입적을 추모하기에 임박하여 앞으로 불교계 환경 운동에 대한 격정과 아쉬움이 앞섭니다.

보성스님은 지난 2003년부터 사패산의 정기를 자르고 환경을 파괴하는 공사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 해 왔던 것은 많은 불자들이와 환경 운동가들이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인권 피해를 계기로 스님은 그 공사장을 철마선원이라 이름하고 암암리에 공사를 진행하려던 시공사의 완력에 강경히 대항하면서도 곳곳히 그 자리를 지켰던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계종정인 법전스님의 간곡한 당부에 말씀을 받들어 환경을 살리자는 운동도 집고 그 산을 쓸쓸히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러한 사이 사패산에 대한 환경도 점차 국민들의 관심은 사라지고, 항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실제 환경과는 관계없는 금전을 앞세운 환경운동가들이 보도되었습니다. 환경지킴이로서 같이 활동했던 포장된 단체들은 또 다른 피켓을 들고 합성을 지르고 있겠지요?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환경을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줄 의무가 있다. 환경을 우리 대에서 파괴해서 되겠는가!"라는 스님은 그 후 시행사와 시공사의 급진 환경운동가에 의해 서로 정리되어지지 못한 금전 문제 때문에 젊은 용역인들의 심한 구타로 인한 건강악화를 견디다 못해 결국 병을 얻어 다시 살 수 없다는 사형선고를 받게 되었다고 분노하면서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의 좋은 환경을 만들자면 젊디젊은 48세의 한 승려는 우리의 기억 속에 점차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도동봉을 지키기 위한 천성산 살리기의 지울스님이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도, 또 지금 보성스님의 입적에도 함께 환경 살리기에 힘을 다했던 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환경운동과 보성스님의 죽음은 침묵하는 대중 속에서 잊어버릴 것입니다.

부디,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말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시어 다른 생명들을 위해 목숨을 거셨던 보성스님과 미래의 불교환경운동에 대해, 모든 생명의 존귀함에 대해, 한번 더 마음 속에 담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환경운동가 보성스님을 추모하는 이들에게)

원적 보성스님 49재 안내

일 시 (매주 월요일)	
초재	2006년 2월 13일
2 재	2006년 2월 20일
3 재	2006년 2월 27일
4 재	2006년 3월 6일
5 재	2006년 3월 13일
6 재	2006년 3월 20일
49재	2006년 3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 정릉 4동(청수장) 북한산 삼원사 대웅전
• 문 의 : 02)917-6867, 912-6855

추진 : 대한불교조계종 · 불교환경연대 · 암도 큰스님 외 일가권속 일동